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67호
2월 27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직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 대면 예배 통한 감염 거의 없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승규 장로 외, 이하 예자연)가 지난 2월 17일(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와 방역 당국의 브리핑 과정에서 실제 이상으로 과장된 것을 바로 잡아준다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 관계자가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던 것과 실제 통계에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전체의 8.2%에 불과한 점을 재차 지적한 뒤, 이는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자연은 코로나 확산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 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인종차별 전 합법제관(예배 자유를 위한 헌법소원 및 부산 세계로교회 사건 등의 법무대리인)은 “제가 방역조치를 검토하며 느낀 것은, 직업과 경제의 자유는 굉장히 많이 보호하면서 신앙과 종교 등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적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와 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과 직결돼 있기에 훨씬

강하게 보장받는다”고 함주어 말했다.

인종차별 법무대리인은 “지하철, 식당 등은 교회보다도 훨씬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데도 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일 많이 참고하는데, 독일에서는 1월 19일 기준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이나 폐쇄되고 음식점은 배달만 가능하지만, 교회는 1.5m 거리 두기만 하면 다 허용한다”고 했다.

안 대리인은 “교회에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며 합헌적·객관적·과학적이고 공정하며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게 방역을 해야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민 화합과 코로나 퇴치에도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정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에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대전송촌교회)는 “조국 근대화, 독립, 자유, 계몽, 교육 등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한국교회가 불과 1년 만에 혐오 집단이 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힌데 대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겁내는 것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고 비난받는 것이다. 확진자가 8만을 넘어 가는데, 이제 국가도 언론도 ‘비밀의 방역’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 확진자도 피해자인데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기본권과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지만, 단 한 가지 예배 시 인원이 20명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모임을 갖는 것은 괜찮은지?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었다는데 방역당국의 농장발표와 언론의 농장보도에 대해 솔직히 사과 받고 싶다”고 했다.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에드보트코리아 대표)는 “교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종교인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민으로서 예배의 자유를 주장할 때 왜 계속 참으라고만 강요하느냐 종교인 이전에 국민으로서 예배의 자유는 인권과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사회가 좌우로 나뉘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제68차 총회 제21회 임원회

신앙과 종교 자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

예배의 자유라는 인권과 권리 보장돼야



신재영 목사
예하성 총회장
새경천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21회 임원회가 지난 2월 24일(수) 오후 2시 다중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오랜 기간동안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증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통합 동영상 회의에서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기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삼상 18: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위해 더욱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 한 뒤 회계 김연수 목사의 기도, 서기 정영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곧바로 이어진 임원회는 재부 한순남 목사의 개회기도 후 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총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어 재부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연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으로 사향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 사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역자는퇴 보고, 교역자소천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2021년도 목사고시 일정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임원회에서는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힌데 대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앙과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리고 교회발 감염소식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가 견지(堅持)해야 할 신앙자세’



조용목 목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 6:24~34)

본문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할 신앙자세 세 가지를 역설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 19:16~22) 재물과 명성과 권세를 버려야 한다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포기하고서라도 세상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 얻는 것을 인생의 중대 과제로 알고 있었고 이를 갈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재물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영생보다 재물 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최대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여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예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고 입는 문제에 국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활을 총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성도들을 더 귀중하게 여가신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에 나는 새와 들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지 않으실리 만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마 6:30~32, 3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므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전 10:13)

셋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순위를 옮겨 정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는 말씀은 주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려는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신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소유가 비록 적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세에 자신의 말대로 일이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애굽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비로가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운집한 광야에서 한 어린 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께서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주시니 오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역설하신 이 세 가지 신앙적 자세를 항상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입법 시도 반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이며, 한림불학자 결정으로 폐기된 낙태죄의 대안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 나태의 예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지지하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제’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분체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형태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0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더욱 소홀하다.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상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평등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

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지는 사실상 관계로 해석될 것이다.

3. 국회는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가정은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이다. 따라서 가정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모성보호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이루도록 국회는 이를 보호하는 신성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통적 가족과 가정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복지적 혜택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와 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16개 법률과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면 이를 더 세밀하게 개정·보완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면 될 일이다.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체계화된 ‘혼인’과 ‘가족’이라는 신성한 헌법적 가치권을 해물고 동성혼 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인 과잉 입법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한다.

2021년 2월 15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준현 목사

대정부 한국교회 목소리 바로 전달

한교연, 임원 총무 코로나19 극복 상임특별위원장 연석회의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지난 2월 16일(화) 오전 11시 경기 양주시 에버그린교회(담임 김학필 목사)에서 제10회기 임원 및 회원교단 총무, 상임 특별위원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한국교회를 향한 연합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고취하고, 대정부적으로 한국교회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여파로 2021년 신년하례회가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마련한 연석회의는 1부 예배와 2부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김학필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김고현 목사(총무협회장)의 성경봉독, 김병근 목사(서기)의 기도, △나라와 민족(이병순 목사) △위정자와 여야 정치권(신광준 목사) △한국교회와 한교연 사역(하재석 목사) △선교사와 선교사역(홍정자 목사) 순으로 특별기도를 한 후,



원종분 목사(상임회장)의 설교, 김윤기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상임회장 김요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간담회는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기조발언에 이어 김훈 장로(기획홍보실장)가 한교연의 2021년 연간 행사계획 보고, 원만용 목사(부흥담당)의 한교연 부흥단 사역, 이영한 장로(감사)가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역, 소일권 목사(언론 출판위원장)가 언론홍보 사

역,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종교인과세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기조발언을 통해 "한교연이 우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끈끈하게 단합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아무리 큰 단체라 할지라도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더 화합을 강조했다.

한교봉, 한교총 쪽방촌 주민들과 설날 나눔

한과선물세트 300여 상자와 마스크 10만 장 전달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설날 명절을 맞아 동자동, 돈의동 등 서울지역 쪽방촌을 찾아 '2021 설날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기정을 방분하며 홀로 명절을 보내는 주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한교봉은 한과선물세트 300여 상자를 쪽방촌 교회와 지역 주민협동회를 통해 전달했고, 한교총이 후원한 마스크 10만 장도 주민



들에게 전달한다.

한교봉은 매년 설날, 추석, 성탄절 등 절

기를 맞아 쪽방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10년째 진행하고 있다.

과도한 공권력 행사 헌법 제12조 침해

국가인권위 "전광훈 목사 수갑은 신체의 자유 억압"

전광훈 목사 측은 지난 2월 11일(목) 서울 시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한 경찰의 행위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경찰

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는 피의자의 호송과 정에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호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체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과잉금지 원칙 하에서 필

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에게 수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 목사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 채운 행위가 명백하게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호송관사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호송규칙'만 내세우고 있다"면서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을 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광훈 목사에게 많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수갑을 채운 것이다. 철저히 법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전통시장 살리고 작은교회도 위로’

고양시기독교총연 ‘5만 원 상당 선물 세트 120상자 구입’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문성욱 목사, 이하 고기총)는 지난 2월 9일(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장기화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통해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고기총은 덕양기독교연합회(회장 신승규 목사)와 일산기독교연합회(회장 안성우 목사)와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일산시장과 원당시장에서 5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 각 60상자씩 총 120상자(60만 원 상당)를 구입하고 그동안 연합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

히 섬긴 교회에 전달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위로를 전했다.

전통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며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마다 '온라인 배달'로 활로를 모색하기도 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쓰기도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족 고유의 대명절임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가족 간의 모임까지 금지되며 명절 특수가 사라진 탓에 상인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사업, 컨퍼런스

과학과 성경의 간극 좁힌다 “자연과학으로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2022년 교단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며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고신총회설립 70주년준비위원회(위원장 강학근 목사)와 고신언론사(사장 최정기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고신총회 70주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과학, 의학, 철학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나아가 갈 방향을 묻는다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25일 안양일심교회(김홍석 목사)에서 출발한다.

이번 1차 컨퍼런스에서는 천문학과 생물학 등 현대 자연과학의 발전 상황이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자리로 마련되어 성경은 교수서



올대 공대 화학생물공학부)가 '빅뱅 천문학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박지옥 교수(미국 퍼듀대학교 9대)가 '현대 생물학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발제한다.

고신총회설립70주년준비위원장 강학근 목사(부총회장)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 2022년 고신총회 70주년을 바라보며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

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찾아보는 한편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 "자연과학의 발전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문화 확산 속에서 다음세대에 복음을 전수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세군, 설 맞아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

‘17개 복지시설에 4000kg 상당 쌀, 돈육세트 전달’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장만희, 이하 구세군은)은 지난 2월 8일(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빌딩 1층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펼쳤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 이충호 서기관, 서대문사랑방 김옥 원장, 돈의동쪽방상담소 김영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17개의 복지시설 △시립여성보호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사랑방 △은평의마을 △평화로운집 △은혜로운집 △양행센터 △ARC연수원 △희망원룸 △남대문쪽방상담소 △돈의동쪽방상담소 △가재울센터 △성동푸드마켓 △마포푸드마켓 △서대문푸드마켓 △보건의사업부 △보영(사회부/자선냄비)과 소외계층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4000kg 상당의 쌀과 돈육세트를 전달했다.



장만희 사령관은 "지난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고, 그만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구세군은 늘 그랬듯 올해도 다가온 설 나눔을 위해서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

금융권과 여러기관들의 후원으로 오늘 자리가 마련됐으며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미래를 위한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 오늘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풍성한 명절을 선물할 뿐 아니라, 이웃들의 일상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변제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WK뉴딜국민그룹, 한국교회 연합단체에 마스크 기증

소외된 이웃 위해,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나사연 등에 10만장씩 전달

WK뉴딜국민그룹(박항진 총재)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에 옮겼다.

WK뉴딜국민그룹은 지난 2월 8일(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소재 삼원타워 303호 본사에서 마스크 전달식 및 업무협약식을 갖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비롯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그리고 나라사랑국민연합(나사연) 등에 각각 10만장씩 기부했다.



이번 전달식은 WK뉴딜국민그룹 박항진 본부장의 사회로 나라사랑국민연합 회장 한정수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한기총 윤원진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총 사무국장 정찬수 목사, 나사연 대표회장 한정수 목사, 기자대표 한규설 목사 등에 마

스크 전달식을 마친 후 박항진 총재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평소 아낌없는 나눔과 섬김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던 WK뉴딜국민그룹의 박항진 총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랑을 몸소 실천에 옮겼다.

박총재는 "10+1 원칙으로 마스크 10장을 생산 매출(수출)하면서 1장을 더 만들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단순히 마스크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이 기회에 기부분화가 확산되길 소원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지난해부터 국내외 곳곳에 기부하다 보니, 판매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우리 회사가 기부회사로 더욱 부각됐다. 앞으로 전 세계에 10억장 기부를 목표로 차근차근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라사랑국민연합, 기도회 개최

권혁한 박사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하여’ 제목으로 강의



나라사랑국민연합대표회장 한정수 목사, 이하 나사연은)은 지난 2월 17일(수) 오전 11시에 서울 강남구 선릉로 112길 60(한성동) 일문교회에서 오전 기도회를 개최하여 일치와

연합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제1부 예배는 사무총장 정대수 장로의 사회로 윤상철 목사가 대표기도 하고 이경현 장로의 성경봉독, 찬양선교사 채연희

권사의 '갯세마네 동산에서' 특송 순으로 진행됐다.

면역학박사 권혁한 장로(일문교회 장로)가 신 28:20-22 말씀을 본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고, 조혜성 선교사의 헌금송에 이어 총재 문원순 목사의 봉헌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박문용 목사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하여, 김홍대 목사 ▲기독교 기관과 대표들을 위하여, 한규설 목사 ▲한국교회와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이재정 목사 ▲세계선교와 북한선교를 위하여, 김진조 목사 ▲나라사랑국민연합의 성장을 위하여, 민현식 장로가 각각 기도했다.

풍암교회 김해상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1월 31일(주일) 오후 3시 순복음풍암교회 제7대 담임목사 김해상 목사의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영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조은주 목사의 대표기도, 배영래 목사의 성경봉독, 색소폰 특송에 이어 최정식 목사는 요삼 1:4 말씀을 본문으로 "잘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둘째 성령 충



만해야 한다. 셋째 복음전파에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분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풍암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성도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2부에서 최 목사는 취임목사와 성도에게 서약을 받고 치리권을 부여하고 공포하였다.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수여한 후 지방회 중정회장 주덕영 목사(나주순복음교회)의 격려사와 광주신학교 이사장 왕상영 목사(혜제순복음교회)의 축사 그리고 스펠리션 교회에서 특별한 축하패 수여가 있었다. 예배는 계속해서 '내 평생에 소원 이것뿐'을 찬송한 후 순복음풍암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김해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기운 데 마쳤다.



교회발 감염정보 정부가 바로잡아야

정부 책임하에 이미지 회복 대책 마련 촉구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승규 정로 외, 이하 예자연)는 지난 2월 3일(수) 한림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왜곡된 정보로 인해 악화된 교회발 감염 여론에 대해 정부는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정부는 책임을 지고 정확한 통계와 감염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2월 1일(월)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혀 과연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어떤 정보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다고 전국 6만교회의 현장예배를 제한하고 1000만 기독교인들의 예배드릴 권리가 훼손되었는지, 이어서 그치지 않고 일부 교회에는 벌금과 시설폐쇄를 단행했는지 분개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공식 발표대로라면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대면예배가 감염위험이 낮은 행위인데 그동안 1-3차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마다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며, 이에 불응할 시 교회 폐쇄조치까지 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발표했다. 정부는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교회발 감염이 많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자연에서는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더 이상 숨겨진 자료와 왜곡된 보도에 속지 말고 정의와 진실을 알리는 지리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예자연은 27개 교회가 예배의 자유와 공의를 찾기 위해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우리의 핵심 가치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 계속 법적 다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판결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자연과 소속된 교회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다"며 "한법기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정부의 공식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완전한 법리적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동안 그 어떤 시설과 단체보다 방역에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는 교회를 혐오단체로 만들고 말았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은 교회를 혐오하게 됐다"며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교회로 몰아간 정부와 언론의 태도에 반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우리는 대면예배를 드리다가 확진된 사례가 있는나고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 대면예배를 금지해 왔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폐쇄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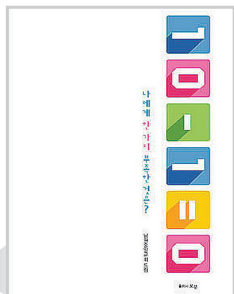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세계로교회를 폐쇄했고 우리 교회에 집합금지를 내렸다. 교회는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철저히 방역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방역이지 통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언론은 다른 곳에서 확진되면 한자로 보고, 교회에서 걸리면 죄인을 만든다. 우리도 국민이다. 편파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교회는 약자 중에 약자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예배드리는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세번째 책'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물습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수학적으로는 9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10가지 잘했는데 하나를 실수하면 모두가 무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10-1=0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연장과 도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차근차근 쌓아올려다 보면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집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어느 한 과정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 회복, 홍광성쇠로 인해 희로애락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택함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나 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때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성한 집을 지어가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담임목사 063)625-0690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성경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CD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교단공과신청

출판현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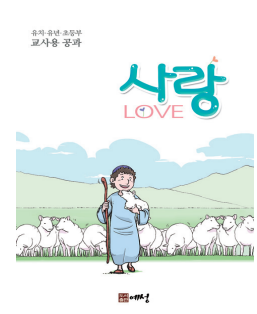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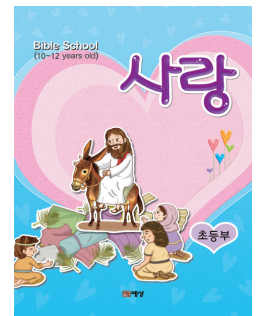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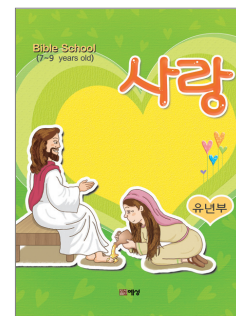
- ① Fax :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농협 355-0053-3758-93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은혜와진리교회

문의

전화 :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생명의 말씀 ■



김기진 목사

· 예하성 부흥사회장
· 충주지방회장
· 제천순복음양문교회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눅 18:1)

기도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믿음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리일 뿐만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누리게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셨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것을 권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실을 늘어놓습니다. 구실을 대고 기

도하지 않는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의식하고 있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창조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 나가게 한 것이 오래 전에 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때문임을 알고 깨닫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들이 쌓아 놓은 기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들이 축적해 놓은 기도들을 대량으로 뽑아 써서 그것이 빨리 바닥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여 다가올 시대를 위하여 기도를 쌓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당신과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라를 위하여 하는 기도 중 어떤 것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교회, 자녀, 사업, 영혼구원 등등)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미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할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기도하는 장소에서 일어납니다.(단 9:2-23)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기도할 때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신의 기도하는 태도를 바꾸도록 하나님의 영이 오늘 당신을 재촉하십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의 미래까지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도 강건해집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의

영과 교제하며, 그분의 생각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당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당신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당신 안에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신성한 능력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기도에 대하여 마 6:6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갓 오시리라” (마 6:6)

이러한 기도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단 6:10절, 7절 하)

동 정

나사렛대, 7회 연속 최우수대학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0장 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7회 연속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며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가 참여했다.

기독교여성교육원 지도자대회



한국기독교여성교육원(원장 홍관옥 박사)은 오는 3월 11일(목)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신길동) 대광교회 글로리아홀에서 '2021년도 제1학기 여성지도자 대학'을 개강한다. 강의를 '성경적 찬양과 예배' 등을 주제로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오는 7월 15일까지 계속된다.

CBS 사장 한용길 경영일지 출간



CBS 사장 한용길 장로(밀알감리교회)가 지난 6년간의 경영일지를 책으로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5년 사장 취임 직후 '광야를 지나서' 간증집을 내놓았던 한 장로는 이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CBS에 어떤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정리했다.

엘트만 박사 낙태 위험 경고



의학박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캐시 엘트만이 "안전한 낙태는 없다"고 경고했다. 엘트만 박사는 "낙태는 여성에게 오랜 기간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다."며 "저는 한때 낙태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하지만 낙태는 자살충동, 불안, 유산, 장기손상 등의 후유증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언론 관계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언론 관계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에 올라 와 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관계법 개정과 정창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 6개가 있는데, 이들 여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곧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짓된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입을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것이 있다. 또 가짜 뉴스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경우 뉴스 사업자에게 열람을 차단하게 하고, 정정 보도를 할 경우 보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과 분량을 주게 한다는 것 등이다.

이렇듯 강력한 징벌적 조항까지 넣으면 서라도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

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언론들의 공인(公人)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손해 배상의 남발로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형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법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나 언론중재위원회법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소위 언론 규제법에 해당하는 미디어는 기존의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를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전 언론과 여론에 파급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의 문제는 과거 효순이·미순이 사건, 광우병 사건, 4대강 사건, 다스 소유주 문제, 세월호 7시간 괴담 사건 등이 진보 계통의 언론들이 과장되게 사용하여 전 정권을 흔들거나 탄핵을

당하게 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 적이 있다.

이런 괴력을 모를 리 없는 현 정권과 여당이 이제는 강력한 세력으로 집권하자, 현 정권에서 떠나는 민심과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기존의 언론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미디어 대안 매체로 떠오른 것이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인데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게 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침해되며, 다양한 사실 전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론이 막강한 세력을 발판으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강력한 움직임은 4월 7일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띄게 될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불리한 여론 형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사기에 충분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로 5일 논평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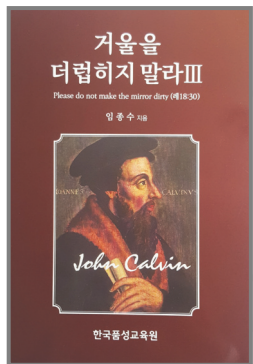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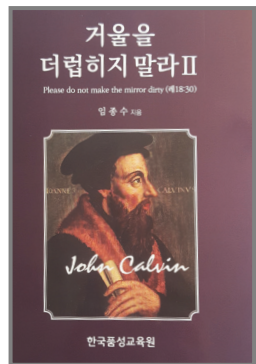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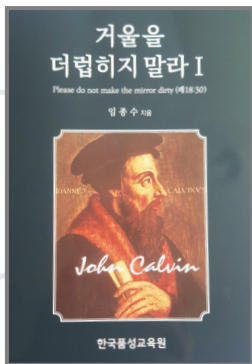
'언론 관계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인 출신들이 이런 '언론 관계법' 개정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 노웅래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 단장, 윤영찬 의원, 양기대 의원 등이 바로 언론인 출신이다.

언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규제법에 앞장선다는 것은 언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고, 그 생리를 잘 알기에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것은 아닌지의 구분이 든다.

법률 개정은 일반인이 언론으로부터의 피해 구제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공인(公人)이나 권력자를 심지어 집권 여당의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포커스

제성호 교수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충신교회 장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⑨

제46조(소의 제기) 제4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7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46조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수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인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뿐만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

적 행위의 중지, 임금, 그밖에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그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5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에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56조, 제757조, 제7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53조(적용범위) 제42조, 제51조 및 제52조는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금지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중단,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든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조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등의 불이익 조치는 부호로 한다.

제56조(벌칙) 사용자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자료 2〉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이유” (박상홍 변호사, 『법률신문』, 2020.8.20.)

누구나 차별받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대우받고 싶지 않은 것은 모든 인간의 속성이다. 인류가 걸어온 발전취도 불평등의 저항이었으며 평등으로의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역사 뒤안길을 되돌아보더라도 강자의 예속에 대한 철저한 저항과 평등을 향한 상황을 처절하게 추구한 것으로 비추어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의 차별금지에 대한 선언만으로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제거하는 데 형식적인 방법에 그칠 것으로 본 탓인지 장에인, 성적소수자 등 개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시작됐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차별금지법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아 한 층 더 높은 단계에서 우리 사회를 결백하고 있는 불평등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안 내용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고용, 임금의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민간기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응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기관은 차별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별로 진정을 제기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업주 등에게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는 평등을 향한 우리 시대에 또 다른 갈고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구제하는 데 동참하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걸음 물러서서 법을 통한 평등 추구하고 불평등에 대한 제재가 가져올 결과를 전망해 본다면 상당한 부분 우려할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동맹이 열거하고 있는 차별항목과 여기에 제외된 차별항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발의안은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차별항목에서 제외된 차별대상이 차별되는 또 다른 차별이 양산하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 제정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평등법을 연상하게 된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보다 큰 문제는 한발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제정된 헌법의 이념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자유를 가능하면 최대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기금적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익적인 사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사인에 관여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규정 문안

세기총, 750만 디아스포라와 함께 ‘미안마의 정의와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정오기도회’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 혼란속에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운동을 펼쳐기로 했다.

오는 3월 1일(월)부터 3월 14일(주일)까지 2주간 매일 정오에 1분간 진행되는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정오기도회’는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세기총 산하 지구와 750만 디아스포라가 함께한다.

세기총 미얀마 지부장 김균배 선교사에 의하면 ‘지난 2월 14일 양곤 시내에 군 병력을 실은 장갑차가 배치되고 경찰 병력이 대폭 증강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이 차단되고, 지난 수일간 일부 지역에서 반화와 강도 사건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는 등 치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매일 쿠데타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체포 또는 구금되고 있

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의 정신과 배치되게 개인간 발생하는 차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국가가 차별로 인정한 차별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차별적 언동을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패널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토대인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게 한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한 부분도 또 다른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차별과 비차별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양극단의 판단과 해석을 내리고 있는 과거 정부들의 전례를 더듬어 보더라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가가 현실적으로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게을리 한 채 국민 간에 발생하고 있는 차별에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사회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법만능주의가 차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다. 특히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얀마 제2도시 만레이에서 벌어진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군경이 실탄을 사격해 수십명이 부상을 입고 최소 4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미얀마 쿠데타는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 이어서 주민들은 물론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마저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목양기원

이효상 목사 // 근대문화진흥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한국교회여! 트렌드(trend)를 멀리하라

“커피인(caffeine)을 하세요?”라고 묻는다. 예전에 마시던 박카스나 커피 같은 각성 물질의 마시던 그 카페인이 이미 아니다. 이카페인은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생활 방식인 카카오톡(kakao tok),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줄여 뜻한다.

그동안 웹(web) 2.0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블로그(blogs),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메시지 보드(Message Boards), 팟캐스트(Podcasts) 등으로 참여, 공유, 개방이 특징으로 네티즌들이 적극 참여해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사회적인 연결성을 중시했다.

웹(web) 3.0은 데이터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비스되는 시대를 말한다. 개인화, 지능화, 상황인식 등이 엄청난 양의 정보 중에 내가 지금 필요한 정보와 지식만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맞춤형 웹의 시대가 웹 3.0 시대다.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정보를 모으고 필요한 정보만을 편집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웹이다.

가령 예를 들어, 웹 3.0에서는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일일이 들어가서 정보를 모으고 요약하는 과정 대신 우리

의 휴가 일정과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정보를 다 찾아보고 그 것에 맞춰 알려준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사회에서 회자되면서, 많이 쓰이는 용어중 하나가 ‘메가트렌드’와 ‘빅데이터’라는 단어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코로나로 인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어쩌보면 변종(變種)이 생겨날 정도이다. 교회는 이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대응해야 할까?

1980년대는 산업화의 뒤를 이어 ‘경영’과 ‘부흥회’가 목회의 필수 키워드(Key word)가 된 적도 있고, 1980년 후반에는 ‘제치훈련’이, 2000년대에는 ‘복지’가 유행어였다. 2010년경부터는 인간 이해를 전제로 ‘상담’이 목회의 필수 과정처럼 어필(appeal)되기도 했다. 어쩌보면 한국교회가 트렌드(Trend)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롤러코스터를 해 왔다.

한때는 미국의 어떤 교회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마치 그것이 교회 성공의 비결인 것처럼 여겨지고 유행처럼 번져 교회 강단과 세미나를 독점하고 필수코스

로 탭방하며 그 과정은 그대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교회와 목회, 사역에 뭘 트렌드가 있을까라는 강조점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한때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물론 트렌드를 잘 선용하면 교회의 여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트렌드에 민감하고 트렌드에 맞추느라 요란스럽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트렌드는 그때 그때 다르다. 선택은 자유겠지만 존재의 가벼움보다는 존재의 진중함이 더 종교가 가진 고유의 성질과 맞다. 어쩌보면 트렌드는 ‘유행’이고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이다. 짧게는 3년 길어야 10년을 못 넘긴다. 왔다가 반짝하고 지나가는 허상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을 열광케 한다.

혹자는 ‘교회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고 기술에 매몰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태되고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교회는 기술적 가치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이라는 기준이 있다.

이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트렌드가 어떤 방향이나 모습으로 변화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어려운 만큼 지금의 교회는 신기술과의 접점을 넓혀가면서도 초대교회의 영성과 공동체성,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오

려 강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물론 전통적인 교회문화 안에도 인공지능의 문화가 도입될 수 있다. 교회가 트렌드에 민감하여 교회 안에 백화점 문화센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교양 아카데미, 카페와 서점, 꽃집 등을 만들어 교회를 ‘거룩한 공간’이라기보다 평일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해서 교회의 대중 접근, 특히 교회와 거리를 두는 젊은 세대들을 끌어 들였다.

궁정적으로 보면 대중의 일상적 삶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종교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비즈니스나 마케팅 지상주의에 빠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트렌드를 파악하고 알아채려는 일은 중요하되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는 또 다른 문제다. 미래학자의 책을 100여 권 읽고 여러 강의를 들었지만 그들의 예측도 틀린 경우도 허다했다. 미래학자들의 헛발질을 보며 그들의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렇다고 시대의 트렌드를 외면하고 모른다곤 절한 일도 아니다. 줌(Zoom)이나 화상회의가 그렇다. 현 시세를 읽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트렌드들이기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하지만 트렌드를 따르는 순간, 트렌드에 휩쓸려 결국은 트렌드와 함께 추락할 수 있다. 오늘 날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고 있다. 세상문화가 추구하는 것들에 동조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간다.

“자기 스스로 사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색과 주장과 선동에 따르게 된다. 자신의 사색을 그 누구에게 공물로 바치는 일은 자기 육체를 공물로 바치는 것보다 천하다.”라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Leo Tolstoy)는 말했다.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접목하며 꼭 트렌드를 앞서가고 주도하고 트렌드에 맞춰가기 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를 넘어선 교회가 가진 영성의 깊이에 달려 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값급함과 병행하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 세울 것인가 하는 데 더 큰 고민을 가져야 한다. 트렌드는 포장지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 화려한 포장지에 정착 그 알맹이가 허다면 사람들은 금방 실망하고 떠나게 된다. 알맹이 즉 내용이 없으면 무슨 사회적 영향력이 있겠는가?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유행하는 문화 시류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려는 것은 어쩌보

면 남의 뒤에 서겠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런 문화현상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거친 반발과 비판을 두려워해 세속적인 현상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다. 그래서 인지 트렌드를 멀리하고 시대를 거슬러 ‘수도원적 영성’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 대안일 수 있다. 트렌드의 옷을 입고 겉틀(gentle)한 교회의 모습은 지녔지만 은혜가 매미론 교회보다는, 트렌드를 멀리하고 영성의 깊이를 더해 영혼을 향한 눈물과 가슴이 뜨거운 교회가 그래야 더 건강하고 희망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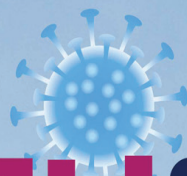
한국교회여! 트렌드를 멀리하자. 트렌드는 본질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여기저기 세미나에 돌아다니며 들은 풍월로 따라한들 언제 전문가가 되겠나. 빌게이츠처럼 한다고 첨단목회가 되겠나.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전문가인 평신도들의 몫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그렇게 그들에게 맡기고 목회하는 처리리 목회의 본질을 부어잡아야 한다.

교회여! 성령충만과 능력을 지닌 교회로 가자. ‘다시 복음으로’, 트렌드와는 결이 다른 길을 가자. 코로나 위기 속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으며, 다시 말씀을 깊이 파 실력을 쌓고, 다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책임역량을 강화하고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시대를 읽고 실력을 쌓으며 트렌드와 반대로 감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남 다른 생존과 탁월함을 이룰 수 있다. 어느 시대나 시대정신을 읽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가는 길이 이미 다르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감으로써 시대를 열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낸다.

1/2



팩트체크



비기독교인들도 보면 좋은 카드뉴스

교회는 **코로나**의 주요감염원이 **아닙니다**

"대면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어" < 2021. 2. 1 아시아경제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대면예배는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전 방역 조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 ✓ 질병관리청 발표 - 2020.1.20 ~ 12.30 종교시설 집단감염 비율 6.8% (타종교 포함)
- ✓ 2021.1.21 질병관리청 발표 - 모든 종교시설 집단감염 7.7% (타종교 포함)
- ✓ (2020.7 한국교회언론회 조사 기준) 이단교회, 오보, 오진단, 교회박 2,3차 감염 등을 제외한 실제 교회를 통한 감염은 전체감염의 약 1.8% 수준 (2020.7.10 크리스천투데이)
- ✓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교회발을 43.7% 정도로 인식 (2021. 2. 3 데일리굿뉴스)
- ✓ **국민이 교회발 감염에 대해 과장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 1. 29 연합뉴스)

2020년 보도

- 종교시설 정규 예배에서 확산하는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수본 "종교시설 고위험 지정한다면 모든 종교에... 소모임 규제 논의" - 2020. 7. 2 뉴시스)
- 타 사회집단에 비해 교회 감염은 오히려 없는 수준
(“교회 감염의 팩트와 통계를 보라! 교회를 마녀사냥하는 진짜이유는?” - 2020. 6. 30 감리교바른신문)
- 교회감염 중 신천지 이증등록자에 의한 감염, 이단교회, 오진 등이 대다수
(“이단과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한 전파 극소수” - 국민일보 2020. 3. 24 /
“코로나19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 예배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 - 2020. 3. 22 크리스천투데이)
-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박양우 장관 "종교계 15일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을" - 2020. 3. 22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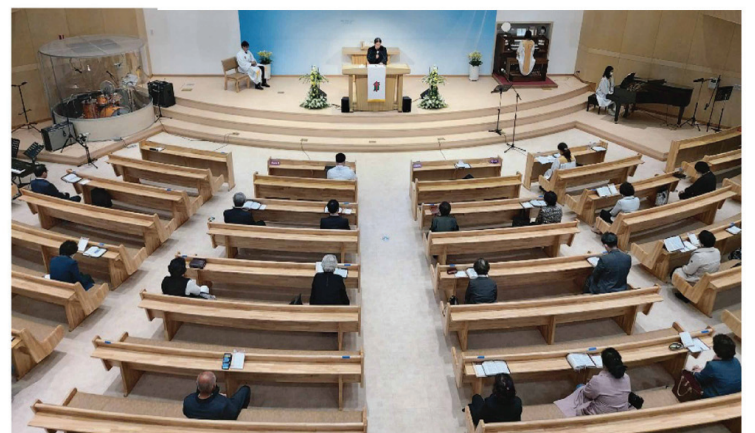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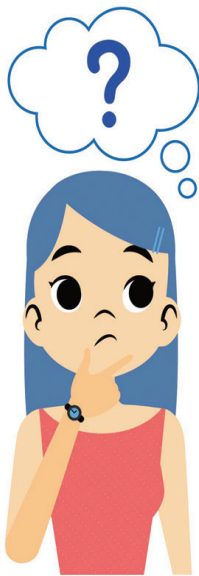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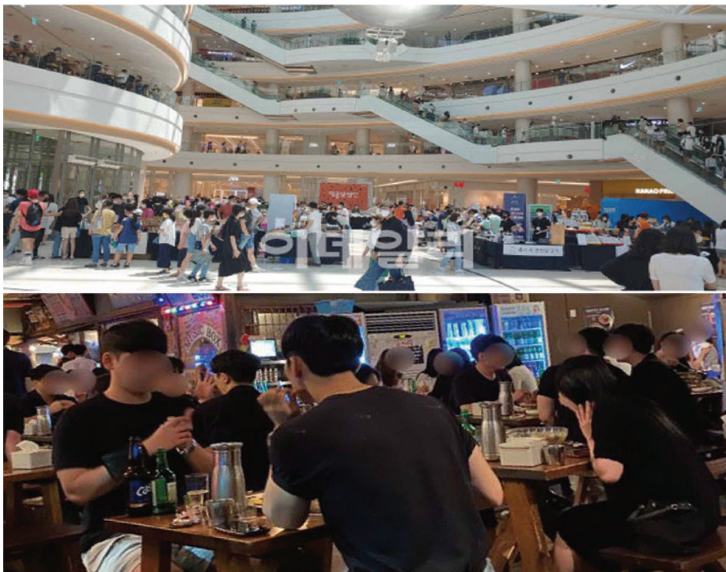


(사) 한국교회언론회

2/2

비기독교인들도 보면 좋은 카드뉴스

설마.. 교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아 단 한 시간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루 700만 명이 운집하는 지하철보다
왜 더 문제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을까요?**

- ① 교회는 집단표본화가 가장 용이하여 기타장소에서 감염된 교인, 교인의 가족감염, 2차감염 등이 모두 교회발로 집계되어 예배가 주요 감염원인 것처럼 부풀려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② 일반 국민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이단교회, 이단성 있는 단체들을 일반 교회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 ③ 언론의 집중 반복, 왜곡보도, 교회에 대한 과도한 행정조치, 다른 시설에 비해 집중 발송되는 당국의 차별적 안전문자 등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팩트는? ▶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2021.2.1)

나가는 말씀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성금마련, 마스크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에 가장 힘쓰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 받고 있음에도 교회는 정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지만, 개신교 인구 비율은 20%로서, 6%대의 감염율은 평균보다 더 잘 방어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오해가 속히 해소되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해가기를 기도합니다. 민족의 독립, 근대화, 민주화, 지금의 사회 봉사 등 한국역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던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사논단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한국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라



권태진 목사

정부와의 창구역할을 맡은 한교총은 정부에 대면예배를 허락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더 이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지난 2월 1일 윤대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 대면예배를 통해서 는 감염이 거의 없었다고 발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늦은 감이 있으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 공표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 그 간 방역에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싶다.

이런 현실에서 교계 일부 지도자들이 예배의 원인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 하지 못하고 권력에 길들여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더 이상 대면 예배·비대면 예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한국교회는 정부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독립성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

곤충 학자이자 '벼룩 여행'으로 알려진 루이지 로 스차일드 박사의 유명한 벼룩 실험이 있다. 자기 몸의 무게인 30cm를 뛰는 벼룩을 높이 10cm 유리컵에 넣고 뚜껑을 닫아 놓았더니 계속 부딪히는 소리가 나다가, 더 이상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뚜껑을 열면 유리컵 밖으로 나오는 벼룩이 없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높이임에도 유리병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권력에 의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까지 포기하고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까지 정부의 눈치를 보며 드리게 되었는가? 왜 정부의 통제를 스스로 자정하고 있는가?

국회와 기독교, 모두 정교분리의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의무를 다하고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당당해야 한다.

예배로 인한 감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지금, 정부는 예배를 좌석 수의 10%, 20% 식으로 정한 불합리한 방역 지침을 거두고, 교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와의 창구역할을 맡은 한교총은 정부에 대면예배를 허락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더 이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교회 스스로 조심하면서 예배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이것이 정부와 교회가 상호 본분을 회복하고 더불어 잘되는 길이다.

교계 지도자가 정부에 굴종하는 자세를 보일수록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는 권력으로 보이게 마련이다. 반대로 교계 지도자는 어용화 된 것으로 비치게 된다. 대화는 좋지만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대화는 타협이 아닌 아합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했다.

한국교회는 135년 동안 숭한 가시밭길을 헤쳐 오며 발전하고 성장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시련은 교회를 연단하는 기간이었다. 그동안 인본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의 깊은 잠에 빠져있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 오히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회가 되었다.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한 이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간이었다.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시 야벳의 우상을 보고 격분하여 변론했을 때, 돌아온 결과는 정론과 조롱뿐이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건과 환경을 보고 격분하고 변론하고 정론하기 보다는 합법선으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마음으로 특별 기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이 땅에 임하여 잘못된 사상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을 시작할 때다.

대한민국엔 기독교가 있고 교회에는 능동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지도자를 저주하기보다는 잘못된 영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때다. 죄는 미우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자. 방역도 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 보급으로 국민 모두가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을 이기는 세력은 없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풍랑을 만난 것을 어떤 개인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분명 전능자의 몫이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재운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거센 풍랑으로 고생하는 의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자.

한국교회에 회개하고 깨어 있어 나라 사랑을 실천하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으며,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진리로 온전케 승리하자. 희망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일어나 함께 가자. 한국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의 헌법적 권리인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2천7백만명(2021년 2월 14일 기준)인 미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면서 방역 및 백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020년 11월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교회의 헌신적인 방역 협력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유의 헌법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역 및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2020년 한 해 동안 전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정부 여당은 지지를 유지에 급급하여 빈번한 신심성 저지금지원을 남발하는 가운데 4.15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자민에 빠져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때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마치 방역지침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집단처럼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살림내비는 지난 1년간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의 침추에 대한 책임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정부 여당은 교회의 예배와 신앙 자유를 훼손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1년 2월 1일 방역당국에서는 지난 일련동안 한국교회 대면예배에서는 감염사례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정부는 일반사회모임은 20, 교회에만 25제한 조치를 적용하여 1만명 모이는 교회에 20명만 모이도록 하여 인터넷 예배 실무자를 제외하면 교인들은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교화에 대한 거룩한 박해조치를 하였다. 단지 몇 교회의 감염 사례를 부풀려서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처럼 보도한 것은 교회탄압이며 코로나 파시즘(Corona fascism)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신천지 장막성전을 공교회로 오인하고 광주 IN선교회 등이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내보내서 정상적인 교회가 방역지침을 어긴 것처럼 보도하여 한국교회 전체를 비방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기관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 이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부의 실정(失政)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부산 세계로교회와 동부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모임인 주일성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 이단이나 변질된 단체들처럼 언론이 인식하도록 부

정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한국교회 전체를 공지에 몰아넣는 정부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동시에 신앙의 자유에 근거한 예배의 자유를 보장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 현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를 공격의 타겟으로 삼아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집중 공격하여 교회의 정당한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유린하면서도 헌법파괴의 본질을 숨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의 헌법적 권리이자 가치인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엄중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미국연방대법원처럼 한국의 대법원도 예배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예배를 드리는 신성한 차스인 교회를 일반 업소로 인식하는 오류를 시정하여야 한다

교회는 종교법인이고 건전한 신앙단체이기에 결코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장이나 영업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교회 인식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에서 발 디딜 틈도 없는 밀집공간과 직장인들이 식당가에서 복직하는 밀폐공간과 부산 보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여당 정치인들이 대중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어묵을 시작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국민은 격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총리와 여당 대표는 틈만 나면 교회가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방역지침을 어진다고 자주 거론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제 눈의 돌보임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집소봉대하는 편향된 인식을 보여주는 위선적인 모습이다. 코로나 확산에서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국민들의 잘못된 추궁과 벌금부과에는 혈안하면서도 자신들이 저질은 동부구지소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일반연구의 반성도 없다.

3. 일반 언론도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 망각이다.

일반 언론도 대다수 교회가 헌신적으로 방역조치에 협력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형교회들이 교회 시설을 확진자들의 병실로 내 놓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보도 보다는 방역 실수로 인하여 일어난 몇 교회의 집단 감염 보도에 치중하면서 마치 교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관이라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SBS 서울지방방송은 공익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사명을 외면하고 8시 저녁뉴스에 무려 20분 가까이

햇불신교제단을 공격하는 무리한 방송을 연이틀 강행하는 불미스러운 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돌출행동은 기특이나 전염병 확산의 책임을 8.15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에게 돌리고 대중교통 수의통이 떨어진 것에 대한 구상권까지 행사한다면서 우박치르는 정부 여당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잘못을 간제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자정기능을 잃어버리고 특정 이익 집단과 정부 여당을 대변하는 어용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것이기에 개탄스러운 모습이다.

4. 교회헌 등 한국교회 공공기관이 정부의 편에서 한국보수교회를 편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NCK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YMCA·YWCA는 2021년 1월 29일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교회 문제 상황'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정부의 코로나 파시즘에 의하여 지난 1년동안 대면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고난당하는 한국보수교회와 연대하여 변론하고 격려하기는 커녕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은 보수교회가 '이웃의 생명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로 간주하고, 신앙의 본질과 집단적 자기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한국보수교회가 종교자유 이름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시켜 반정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폄하하였다.

1970년대 이 기관들이 보여준 사회정의의 수호정신은 어디에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한국기독교협의회는 사회적 약자 편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했는데 오늘날 정부는 비록 선거로 집권했으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자기 세력으로 장악하는 전체주의 독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전체주의 성향의 정부를 두둔하는 것은 강자 편에서, 예배 폐쇄를 당하고 구상권 행사 추궁까지 당하는 약자인 교회를 억누르는 것이 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기해자 아닌 패하자인 한국교회는 하나 된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한국보수교회는 38개 교단이 연합단체를 이루고 있다. 물론 지구상에 가장 작은 국가 제도 속에 있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의 일사불란한 모습과는 다르지만,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국민 계몽

신간 안내

우리 교회 온택트 주일학교



우리 교회 '온택트 주일학교'로 아이들의 신앙 포텐이 터진다. 이 책은 1년이라는 긴 코로나19와의 사투 외중에 한성교회의 차세대 사역 팀장인 저자가 동역자들 및 헌신된 교사들과 함께 주일학교 시스템을 온택트로 전환시키면서 피, 땀, 눈물을 흘려 가며 영롱한 사역의 열매를 얻기까지의 여정과 그 결과를 담고 있다. '온택트'(On tact)란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저자는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로,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주일학교의 모든 콘텐츠를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추어 프로그래밍했다.

저자 : 유지혜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1-02-08 | (148*215)mm 206p | 판매가 : 12,000원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에 로마 제국과 에베소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이 녹아 있어, 이야기 전개만 따라가면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와 회유를 받았는지,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환상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들을 서술한다. 1세기 로마 제국과 에베소의 생활상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다.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좋은 자료가 된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원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된다.

저자/역자 : 데이비드 드살바/이여진

출판사 : 도서출판 이레서원 | 발행일 : 2021-01-25 | (140*200)mm 264p | 판매가 : 16,000원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론



네덜란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1854-1921)는 개혁파 전통에서 가장 웅변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명성, 즉 그가 어떻게 설교했고 설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책은 유일하게 출간된 바빙크의 설교론과 함께,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그의 주요 사상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중요한 간행물이다. 또한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짧은 책 '웅변술'(Eloquence)을 엮어 독자들에게 그의 설교에 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 설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책을 통해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저자/역자 : 헤르만 바빙크, 엮은자 제임스 에글린턴/신호섭

출판사 : 도서출판 다함 | 발행일 : 2021-02-05 | (142*215)mm 양장본 232p | 판매가 : 15,000원

네 생각보다 더 너를 사랑해



어린이이처럼 예수님과 누리는 '알콩달콩' 친밀함과 사랑 이야기. 저들만 그리스도인이려면 각자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광대하신 그분을 더욱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에만 멈춰 선 경우도 많은 듯하다. 그런 이들에게 이 책은 놀랍고, 아श्히기도 하고, 이 책에 담긴 수많은 질문을 드리며 주님과 마음을 나눈 작가가 부러워하기도 할 것이다. 이 책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친근하고 유머러스하다. 그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께 때도 쓰고, 엉뚱한 행동도 하고, 고민도 많지만 무엇보다 다 털어놓는 '단비' (예인 캐릭터인 나무늘보 SNS 계정에서는 '도봉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가 있다. 예수님은 그런 단비에게 귀 기울여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해주신다.

저자 : 이단비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1-02-0 | (130*190)mm 264p | 판매가 : 14,000원

운동을 통하여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6.25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피난민과 함께 하면서 폐허가 된 한국사회를 재건하는데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였다. 지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확진자와 가족들이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을 받지 못한 채 격리되고 고소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의료 활동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필요할 경우에 교회 시설을 방역과 일원병실 확보로 내어주고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인력과 치료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대승적인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지립교회들은 고통이 크나, 인내의 신앙으로 견디어 내며 주님 이 주실 코로나 종식의 날을 기다려 주기 바란다.

6. 한국교회는 예배와 함께 사회적 덕을 세우야 한국사회 등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2월 6일 광주서 '불 꺼놓고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적발'..40명 모여 방역위반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교회할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0일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이를 무시하고 신종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터이 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이들 교회의 '종교의 자유' 이름으로 행하는 대면예배의 강행은 불신자들의 눈에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하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2월 15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구예배 참석 가능 인원 수는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의 20%, 비수도권은 30%로 상향됐다. 장구예배 참석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공교회는 민족스럽지 않으나 이에 상응하여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은 지난 2020년 8월 59%에서 2021년 1월 86%로 급증했다. 그리고 향후 한국교회에 집중해야 할 분야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공공성'이라고 꼽았다. 예수님은 예배드리기전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한국교회는 정부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우리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표자이다. 인내를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견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7. 한국교회는 악함을 지양하고 더욱 겸허한 태도로 사회적 덕을 세우는 데 힘쓰자.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여 대형교회부터 순서하여 지난해 2월부터 대면예배를 피하고 온라인예배를 드렸으나 정부의 방역은 1년동안 코로나 파시즘의 형태로 시행되어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정부의 방역실책이 아니라 교회의 무분별한 예배로 몰아갔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파시즘의 피해자이지 사회 방역 실패의 가해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악함을 지양해야 한다. 전국 6만 교회 가운데 몇 교회의 실수에 대하여 연대하여 저들과 일치하여 대사회 실수를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위해질 때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도덕적 우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도 대다수의 교회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방역에 헌신적이고 협력적임을 알고 있다.

2021년 2월 15일

살림을 꾸리는 나비행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물린

(전북대 연구논문)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4)호흡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볼 때(호서대 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 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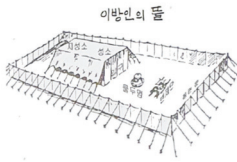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지성소 앞에서



성막의바깥쪽은 내가 있던 곳입니다.
지성소에서 아주 멀리만 있던 이방인의 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세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큰 소리 치던 곳입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의 발걸음은 성막 쪽으로 향했고
이방인의 뜰로부터 떨어져 갔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울타리 저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안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
이방인의 뜰과는 사뭇 다른 생명의 냄새가
울타리 휘장이 펼쳐질 때마다 내 코를 자극했습니다.

성막문 가까이와 기웃거릴 때 내게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방인의 뜰에 있을 때
전도자가 한말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회개와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내 앞에 지성소의 질긴 휘장은 보이지 않았
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애타게 나를 부르고 또 부르신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딸을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거기 계셨습
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성막의 뜰에 대해 말씀 읽을 때 이방인의 뜰에 있던 내가 생각이 났다.
서서히 주님 곁으로 다가온 순전들을 떠올려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금새긴다.

환경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찾는 포럼 개최

‘환경문제의 제반 쟁점과 대안 모색’ 주제로 열려

전 세계의 공통적 미래 관심사로 떠오른 환경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찾아보는 포럼이 개
최됐다. 세계의 지형마저 바꾸는 급속한 기후변화
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창조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독교가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열린 이번 포럼은 향후 한국
교회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코리아네이바스(이사장 이정익 목사) KHN학술
원(원장 이규영 교수)은 최근 서울대총동 서강대학
교 정하상관에서 ‘환경문제의 제반 쟁점과 대안 모
색’이라는 주제로 2021년 신년포럼을 개최했다. 장
병향 화상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이뤄진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한 실제적 심각성
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과 정치 관계,
인류의 참여 등에 대해 광범위한 분석이 이뤄졌다.
특히 기후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본 포럼
은 이규영 교수(서강대)와 김대식 교수(숭실대), 정
범진 교수(경희대)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남궁
대준 박사(KHN행정기획국장)가 좌장을 맡아 순서
를 진행했다.

사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올해의 설날은 이상한 설날이었다고 회고한다. 왜?
5인 이상이 모이면 발발이 되는 설날이라서다. 위관하
지 않으려면 같은 형제간이라도 순번을 정해서 차례차
레 가야 되기 때문이다. 첫째가 부모님을 뵙고 나오면
둘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셋째가.. 형제라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설날이
었다.

이상한 일들이 그 뿐일까? 더 이상한 것은 중국 공
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동령을 비롯하여 국
무총리 국회의장, 경기도지사 등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
인들에게 전하는 춘절 인사를 했다는 점이다. 일본과
미국은 배척하면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하고,
북한이 남한에 온갖 별의별짓을 다해도 항의 한번 못하
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웃어도 입 한번 뱉지 못하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
니다.

이상하고도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다
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가? 과거 조선의 왕들은 정월 초
하룻날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명갈례(賀正禮)가 있었다.
대궐에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골패(骨牌) 앞에 분무백
관을 거느리고 군신(群臣)의 예를 올리던 것이다. 1898년
폐지될 때까지 거른 적이 없다. 인조는 명 황제에게 명
갈례를 치루면서 세자와 함께 곤룡포를 휘날리며 춤추
고 노래를 부른다. 나라의 치욕과 무력감이 극에 달하는
장면이다. 2017년 대통령이 중국 방문 때 '한국은 중국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한국은 작
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드 배치 때 중국의 압박에 못 견딘 정부는 사드 3
불(7) 약속을 하여 안보 문제를 중국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백령도 코앞까지 중국 경비함
이 드나들어 도 항의 한번 못하는 정부, 집권세력이 총체
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굴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다. 송중사대(崇中事大)··· 그 뿐일
까?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잘한다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더니 코로나 백신은 OECD 37국 중에 가장 끝째라
니 정말 아이없는 일이다. 가급적이면 정부 발표를 그대
로 믿어보지도 생각을 하지만 금방 사실이 아닌 일로
드러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믿어야 할
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일까?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인 지정학 전략가인 피터 지아한의 분석을 따르면 앞으
로의 미래의 세계는 미국이 세계질서에 발을 빼고 중국
은 10년 이내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과대평가됐다. 아시아의 우두머리는 일본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지역 맹주로 낙점했
다'고 했다. 일본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중국을 압도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국은 다
시 부상하는 일본과 경제적으로 융합하는 길이 가장 현
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남북통일을 방해한 나라다.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와 남한을 공격한 나라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을 향해서 아첨 일쑤다. 서로 협력해야 할 일본에 대
해서는 토착왜구라며 죽장을 들고 나가 싸우지며 열을
올리고 있다.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 현 정권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나라의 정리에 대해서 대
비책이 있다는 것일까 없다는 것일까? 처칠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화로
평화를 이룬다고, 제대로 된 것일까?

지난 3년 반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
폐기를 한다는 하위추진으로 시작하여 두차례 북미정
상회담까지 열렸으나 그 결과는 3년 전보다 더 악화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함으
로써 북한은 한국과의 교류의 사자가 없다는 사실을 공식
으로 통고한 것이다.

현 정부는 북한의 눈치 보기와 대북 종속, 저지세 협
상으로 일관해 해외 언론으로부터는 문대통령이 북한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중국 공산주의
는 여전히 제국주의 사고로서 한국을 신하(臣下)국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 있을 때 중국에 대
하여 강하게 나갈 수 있다. 중국에 저지세인 현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는 지나친 대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에는 친중사대주의, 일본에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비상
식적인 극단의 비이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 이끌
아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
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시
144:15)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
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
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
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
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
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
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들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 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